

미국에서 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

남미영

테레사·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오래 전 호스피스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마치 나의 미래 어느 시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으로 들렸고 매우 반갑고 고마운 소식으로만 생각되었을 뿐이었다. 그때는 내가 그 일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었고, 또한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후로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난 어느 날 본당 주보에 실린 호스피스 교육 광고를 보는 순간 나는 왜 그리도 가슴이 두근거렸었는지 모른다. 등록을 하고 나서 달력을 보면서 교육날짜를 또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었는가. 그래서인지 그동안 받아온 그 어떤 종류의 교육보다도 당시의 호스피스 교육에서만큼 심취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때부터 나와 호스피스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가 되어왔다.

교육을 받고 여의도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봉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배 봉사자들 마음속에서 환자 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봉사자간의 우애를 보았고, 그 모든 자세들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을 느끼고는 마치 나에게도 앞으로 그러한 높은 질의 삶이 보장되는 듯한 안도감을 가지기도 했다.

매 주마다 환자분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분들과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서로가 무언가를 나누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나에게게는 인생의 대 선배님으로 대해졌으며 그분들 앞에선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신비로운

변화에 놀라워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과는 분명히 너무도 달라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봄 남편을 따라 미국에 1년 반 동안 체류하게 되었다, 그 전에도 10여 년의 체류를 통해서 익숙한 미국생활이었기에 이번 기회에는 그곳의 호스피스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출국 전 인사를 하기 위해 호스피스 사무실에 갔을 때, 새로 부임해 오시어 처음 만나 뵈게된 민 필로메나 수녀님께서 미국에 가있는 동안에도 그곳 호스피스활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접해보라고 권하시는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더욱 더 의욕을 갖고 미국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가 자리잡은 곳은 미 동부의 뉴저지주였으며 델라웨어 강을 건너면 차로 30분 거리에 바로 펜실베니아주이었다. 그곳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병원이고 그 외에도 주변에는 Thomas Jefferson 과 같은 유명한 병원들이 적지 않게 몰려있었다. 우선 가까이 있는 정부기관 운영 의료시설(Family care center)이 있기에 찾아가서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를 구하니 안내 책자를 주며 연락해보라고 하였다. 막상 찾아가 보니 이제까지 내가 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시스템으로, 가정호스피스 유형으로서 의료진에서부터 자원봉사자까지 완벽한 인적구성을 갖추고 가정에 계신 호스피스환자들을 방문하고 있었다. 또 주변의 큰 병원들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호스피스봉사자 팀과 접촉해보기 위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레 다시 실감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성격도 많이 달랐다.

우선은 모든 병원들이 의료사고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무료 자원봉사자들보다는 보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유료 봉사자 내지는 위탁직원들이 대부분의 그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비가 그토록 높은 이유도 알 것 같았다. 한 봉사자의 말이, 일반 봉사자들도 봉사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자에 대한 그들의 자세는 매우 신중하였다. 그러기에 잠시 체류하는 나로서는 그 분야에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고 단지 그분들의 이야기와 모습, 함께 하는 동안 배우고 느끼는 것이 전부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자 분들에 대한 그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였으며 장기적이고 고가의 비용을 수반하는 질환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정부에서의 지원(메디케어, 메디케어)이었다.”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주변에서 함께 보내면서 느낀 것은 ‘암 환자’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신분상의 변화와도 같다는 느낌 이들 정도였다. 죽음을 직면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기에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 같았고, 그 특혜는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원할 땐 언제나 해당 병원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환자의 상태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하여 수시로 병원 측과 상의하여 변경도 하고 결정도 내린다.

한편 미국은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기반을 둔 기대나 의무보다는 각 개인생활의 중요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에,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도 병원에서는 가족으로부터의 간호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세분화되어 유료로 제공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의료비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는 중에 나의 아버지께서도 대장암으로 미국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수술하신 병원(St. Joseph Hospital)과 Care Center를 오가면서 그동안의 호스피스 봉사의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보려고 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도무지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드리는 것조차도 나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를 않았고, 씻겨드리는 일도 위탁 직원이 자주 와서 해주고 가는가 하면, 친절하고 우람한 직원들이 휴게실로 또 물리치료실로 모시고 다녔다. 그 후 Bergen County Medical Center에서 long term care를 받으실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는 것 외에는 없었다. 이것저것 내 손길로 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수 없는 것이 처음엔 아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들이 아버지와 이제까지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와 기도, 그리고 무언의 나눔까지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러웠다. 그동안 호스피스 봉사자로서 교육을 받고 여러 환자분들과 나눔을 가져왔기에, 그 당시 암 선고로 충격을 받고 계시던 아버지와 마주하면서 아버지의 고통과 두려움을 읽어드릴 수 있었고, 내가 그동안 아버지께 지녀오던 갈등도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다른 집안문제로 인해 아버지와 좀더 내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지금도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였다면 그나마도 아버지와 그런 좋은 시간들을 그만큼 가져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병원 실정으로는 가족이 환자와 그런 중요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서비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경비 부담이 그와 똑같이 현실적으로 가중된다.